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서 Vinorelbine, Ifosfamide, Cisplatin 3제 복합화학요법의 효과

장훈문*, 이정애, 안진석, 우인숙, 박영이, 손지용, 김동규, 이승준,
모은경, 박명재, 이명구, 현인규, 정기석, 박영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배경 근치적 절제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은 예후가 극히 불량하며, 생존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여러 복합화학요법이 시도되어 cisplatin을 포함한 복합화학요법이 약간의 생존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료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에 비교적 독성이 적고 폐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새로운 항암제들이 개발되었으며 vinorelbine도 그러한 약제 중의 하나로서, 기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ifosfamide와 cisplatin과 함께 사용했을 때의 효과 및 안정성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1997년 10월부터 1999년 6월까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4개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조직학적으로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받고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한 제 III, IV기 환자 중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치료는 vinorelbine 25 mg/m²을 제1일, 제8일에 정주로, ifosfamide 1.5 g/m²을 mesna와 함께 제1일에서 3일까지 3일동안 정주로, cisplatin 60 mg/m²을 제 1일에 정주하는 것을 매 3주마다 반복하였다.

결과 대상환자는 26명이었고 남녀비는 21:5였다. 중앙연령은 61세(36-79세)였고 병기는 stage IIIA가 1명, IIIB가 13명, IV가 12명이었다. 활동도는 ECOG scale로 0-1이 21명, 2가 5명이었다. 조직학적으로는 선암 15명, 편평상피세포암이 11명이었다. 항암화학요법의 투여횟수는 평균 3회(1-9회)였다. 26명 중 22명에서 평가가능하였으며 완전관해 1명, 부분관해 6명, 불변 10명, 진행 5명으로 반응률은 26.9%였다. 반응 지속기간은 중앙값 24+주(8-67+주)였다. 전체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은 52주였다. WHO 기준에 따른 혈액학적 부작용은 총 80회 중 3도와 4도의 백혈구감소증이 각각 5회(6.2%), 3회(3.8%)있었고 중성구감소증과 동반된 발열이 3회(3.8%)있었으나 이에 따른 사망은 없었다. 또한 3도의 빈혈이 5회(6.2%) 관찰되었다. 비혈액학적 부작용으로는 1도의 오심/구토가 24회(30%), 2도가 15회(18.8%)에서 관찰되었고, 1도의 구내염이 9회(11.3%)있었고, 1도의 신경독성이 2명(7.7%)에서 있었다.

결론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서 vinorelbine, ifosfamide, cisplatin 3제 복합화학요법은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기존의 복합화학요법과의 치료효과 비교를 위하여 제3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NP(vinorelbine, carboplatin) 복합화학요법

한국보훈병원 내과

김종률*, 김봉석, 정오영, 이진한, 소미진, 나병주, 이귀래, 노용호

근치적 절제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 많은 항암화학요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며, cisplatin을 근간으로 하는 복합화학요법은 독성으로 인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다. Carboplatin은 cisplatin의 유사물로 비슷한 수준의 항암효과를 가지면서도 독성에 있어서는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Vinorelbine, Paclitaxel, Gemcitabine 등의 새로운 항암제가 개발되어 임상에 적용이 되고 있고, 특히 vinorelbine은 cisplatin과 함께 사용한 3상 연구에서 기존의 치료법보다 우수함을 보고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vinorelbine에 cisplatin을 대신한 carboplatin을 사용한 NP 복합화학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1998년 8월부터 1999년 7월까지 한국보훈병원에서 병리조직학적으로 비소세포폐암으로 확진되고, 병기 III 이상의 환자로 근치적 절제술이 불가능하며, 계속 가능 병변이 있고, 활동도가 ECOG 기준으로 0-3도이며, 백혈구 수치 4,000/ μ L 이상, 혈소판 수치 100,000/ μ L 이상, 간기능, 신기능 및 심장기능이 정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NP 복합화학요법은 vinorelbine 25 mg/m²을 D1과 D8에, carboplatin 400 mg/m²을 D1에 정맥주사하는 것을 1주기로 하여 매 4주마다 반복 투여하였으며, 치료는 환자자 감내하는 한 질병이 진행할 때까지 시행하였다. 대상환자는 총 26명으로 복합화학요법 1회 시행 후 판정이 불가능한 3명을 제외한 23명에서 치료 후 반응의 평가가 가능하였다. 남자가 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나이는 46~77(중앙값 68)세였으며, 이 중 60세 이상이 21명(81%)이었다. ECOG에 따른 활동도는 1이 18명(69%), 2가 5명(19%), 3이 3명(11%)이었다. 병기는 IIIa가 3명(11%), IIIB가 11명(42%), IV가 12명(46%)이었다. 세포조직학적 분류상 편평상피세포암 17명(65%), 선암 8명(31%) 그리고 미분류가 1명(4%)이었다. 평가 가능한 23명 중 부분반응이 12명(52%), 불변이 2명(9%), 진행이 9명(39%)에서 관찰되어 반응률은 52%(95%CI: 31.4~73.0%)였고, 관해유지기간은 2+~39+(중앙값 17)주이었다. 생존기간은 3~52+(중앙값 26)주이었다. 총 105(중앙값: 4, 범위: 1~9)회의 화학요법 중 혈액학적 부작용은 WHO 3도 이상의 백혈구감소증이 5회(5%), 혈소판감소증이 5회(5%)에서 관찰되었으며, 비혈액학적 부작용은 2도 이상의 오심과 구토가 3명(12%)에서 나타났고 구내염 및 설사는 각각 1명에서 관찰되었으며, 4명(15%)에서 항암제 투여와 관련된 정맥염이 발생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서 비교적 고연령 및 나쁜 활동도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NP 복합화학요법은 부작용은 적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료된다.